

올해 혁신도시 채용門 더 좁아진다

2020 신입 채용계획 발표...13개 기관 2281명 정규직 채용 전년비 7.4% 184명 줄어...한전 체험형 인턴 4·8월 진행

올해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기업·기관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채용 일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자료에 따르면 채용계획을 밝힌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28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채용 예정 인원 2465명 보다 184명(7.4%) 적은 수치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예산 72조 원을 거느리는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이다. 한전은 올해 채용인원 1500명 중 300여명을 지역인재로 뽑을 계획이다. 채용은 일반 1250명과 고졸자 250명 채용으로 나뉜다. 대졸수준 공개채용은 오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집 부문은 사무와 전기·ICT·토목·건축·기계·원자력 등 기술 등이 있다. 신입

사원 연봉은 대졸 3575만원, 고졸 3186만원 수준이다. 토익 700점 이상 등 여학생적을 제출해야 하며 한전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했다면 가산점이 붙는다. 정규직 채용 기회를 놓쳤다면 오는 4월과 8월 진행되는 모집 규모가 약 1500명에 달하는 '체험형 인턴'을 노려볼 만하다. 한전은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992명 중 21.9%인 217명을 광주 전남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졸업 예정)자를 채용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향한 24%로 정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갈 예정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은 각각 250명(일반 200·고졸 50명)과 150명(일반 122·고졸 18명)을 뽑는다.

올해 혁신도시 기관 채용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명)

기관명	정규직
한전	1500
한전KPS	250
한전KDN	150
전력거래소	35
농어촌공사	205
농림식품기술평가기원	9
사람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9
농촌경제연구원	5
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인터넷진흥원	30
콘텐츠진흥원	12
문화예술위원회	12
합계	2281

두 기업은 지난해 지역 의무채용률을 넘겼다. 한전KPS는 신입사원 167명의 24.5%인 41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고, 한전KDN 신입사원 148명의 22.9%(34명)가 지역인재였다. 신입연봉이 4100만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오는 3월 기간제 1명을 포함

한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들어선 농업 관련 기관들은 올해 3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은 205명 채용 계획을 세운 한국농어촌공사이다. 공사는 오는 9월 일반정규직 190명과 무기계약직 15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들 연봉은 2211만~3066만원 수준으로, 토익 600점·토픽스 482점 등 여학생적 기준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9~10월 하반기 신입·경력직 42명을 뽑는다. 고졸 부문으로 채용된 7명은 지난 달 부서배치를 받고 근무를 시작했다. aT도 오는 5~6월 체험형 인턴 41명을 뽑아 청년의 경력 쌓기를 도울 예정이다. 이외 사람학교교직원연금공단(15명), 한국인터넷진흥원(30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9명) 등은 오는 3월에 원서를 받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8월에 새 식구 12명을 들인다. 올해 전파진흥원은 인공지능(AI)을 채용 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노조 협의체, 사업계획 수립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반대 나주시와 노조 협의의 진행 등 논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18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등 올 한 해 사업계획을 세웠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020년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진> 광전노협에는 한전KDN, 농어촌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학연금 등 13개 노조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으로는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 저지를 위한 협력 강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다양

한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한 회원 기관 노동자들의 단결 도모 ▲광전노협 차원 복지 제도 마련 등이 마련됐다. 광전노협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의 SRF 사용을 막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선전 활동·토론회 등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한 노조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는 광전노협 의장배 스포츠 대회가 처음 열린다. 당구, 축구, 야구 등 인기 스포츠와 온라인 게임 등이 종목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주시와 노조 협의의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 사업 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해 노조원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 개발 사업 전담 'KRC 지역개발센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개발 사업 전담하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공사는 18일 대전에서 9개 지역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RC 지역개발센터'는 전남지역본부 등 9개 지역본부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다. 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부문에 대해 174건의 지역개발 해결방안을 제공했다.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은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 신규지구 컨설팅, 농촌협약 체결지원, 농어촌 현안 해결 등을 지원했다. 'KRC 지역개발센터'는 올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전국 9개 지역센터에 전담직원과 대외전문가 등 총 201명의 인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도시재생뉴딜, 농어촌마을 운영 활성화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공사 본사에 농촌, 어촌, 해양, 융복합산업 등의 지원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열린 '2020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에 18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해 366건, 약 5700만 달러(678억원)의 수출 상담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aT 제공>

'게임시장 활성화' 콘텐츠 제작 147억 지원

콘진원, 실감형 부문 신설 26일까지 e나라도움 접수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는 147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게임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 '기능성', '차세대', '첨단융복합', '실감형' 등 4개 부문 147억 규모로 마련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 게임 시장 확대를 위해 실감형 부문이 신설됐다. 먼저 '기능성' 부문은 총 20억 원 규모로 게임 재미와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형태의 게임콘텐츠를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기능성 부문 지정 분야에서는 UN에서 지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연계한 사회공헌 기능성 게임을 지원한다. 자유 분야는 다양한 목적의 온오프라인 게임콘텐츠 제작을 신청할 수 있다. '차세대' 부문의 예산은 총 62억 원 규모로 게임콘텐츠 제작과 수출 지원을 목

적으로 한다. 글로벌 분야는 국외 1개국 이상 출시목표 모바일 게임을, 시장선도 분야는 국내외 출시를 목표로 하는 모바일을 제외한 콘솔, PC 등 다양한 플랫폼 게임이 대상이다. 두 분야 모두 과제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분야는 창업 3년 미만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을 지원하고, 과제당 최대 2억 원 및 투자컨설팅 혜택이 주어진다. 가상현실 게임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첨단융복합' 부문은 8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신설된 '실감형' 부문은 설립 5년 이상 기업을 지원하며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게임을 과제당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한다. '실감형'은 우수 IP 활용과 VR HMD와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등 병행 제작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참가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